

국내외 PE 동향 및 이슈 점검

December 2024

삼일PwC경영연구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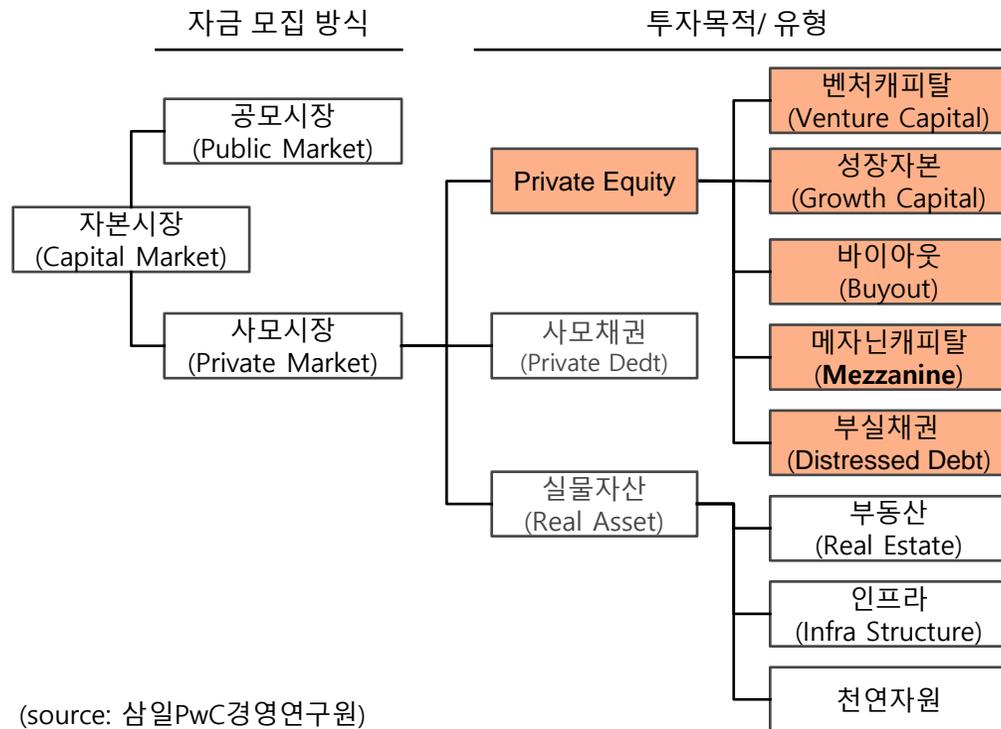
삼일회계법인

Intro. PE 한눈에 보기(1/3)

■ 사모시장은 투자 대상에 따라 크게 프라이빗 에퀴티와 사모채권, 실물자산으로 구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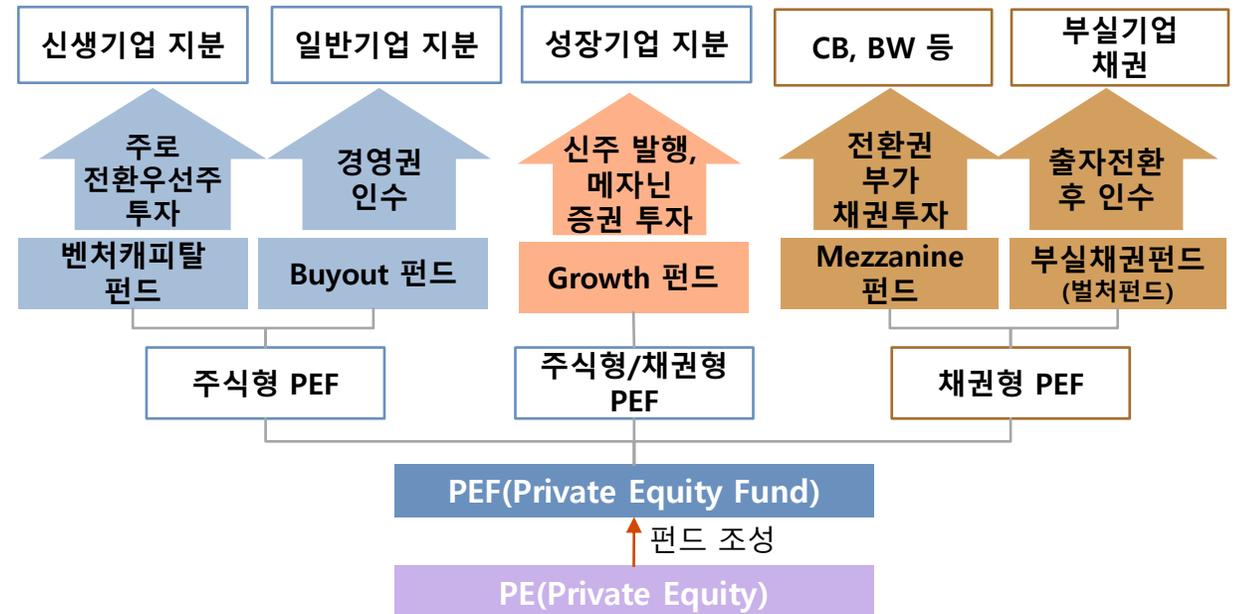
- 프라이빗 에퀴티(Private Equity, 이하 PE) : 주로 특정 기업 경영 참여 위해 지분형 증권 투자. 통상 회사를 매입하고 3~5년 후 되팔아 이익을 남기는 것이 목표
 - o PE를 좁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 보통 Buyout을 지칭할 정도로, Buyout 형태의 투자가 일반적. 특히 초기 한국의 PE는 글로벌 PE 중 Buyout 을 모델로 형성
- 사모채권(Private Debt): 대출형태의 자본 공급으로 경영권 없음
 - 실물자산(Real Asset): 부동산, 인프라, 천연자원 등에 대한 투자

자본시장(Capital Market)의 구분



(source: 삼일PwC경영연구원)

PE의 투자 유형



Intro. PE 한눈에 보기(2/3)

- 글로벌 사모시장의 운용자산(AUM: Assets under Management)규모는 13.1조 달러 ('23.1H 기준)**
 - 종류별: PE가 8.2조 달러로 전체 사모시장의 63%를 차지. 실물자산(부동산/ 인프라/ 원자재)이 24%, 사모사채가 12%의 비중
 - 지역별: 북미지역이 7.1조 달러로, 전체의 54%를 차지. 아시아는 2.7조 달러, 유럽 2.7조 달러로, 전체 시장 내 각각 21%, 20%의 비중
- 자금모집(Fundraising)현황을 살펴보면 '23년은 1조 달러 모집(YoY -22.4%)하며, '21년 이후 조달 환경 어려움 지속**
 - '21년은 저금리와 증시호황을 바탕으로 최대의 실적을 기록했던 반면, '22년 이후 금리 인상, 자산시장 냉각, 매크로 불확실성 등이 더해지며 투자심리 저하

사모시장 운용자산(AUM)

(단위: 십억 달러)

	Buyout	Venture Capital	Growth	기타	Private debt	부동산	인프라&원자재	합계
북미	2,393	1,079	625	242	1,047	989	725	7,100
유럽	1,003	213	135	6	442	379	486	2,664
아시아	379	1,294	515	42	117	226	151	2,724
기타	98	120	97	5	87	80	147	634
합계	3,873	2,706	1,372	295	1,693	1,674	1,509	13,12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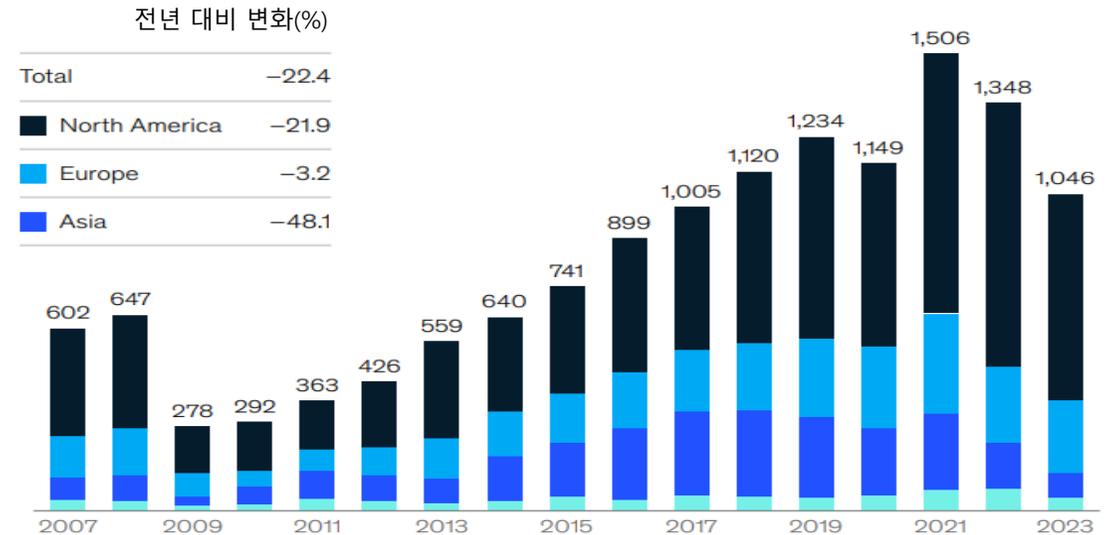
Private Equity: 8.2조 달러(63%)

Real Assets: 3.1조 달러

(source: Mckinsey, 삼일PwC경영연구원)

사모시장 자금모집(Fundraising)

(단위: 십억 달러)



(source: Mckinsey, 삼일PwC경영연구원)

Intro. PE 한눈에 보기(2/3)

	Global	국내 ²⁾³⁾
AUM(운용자산) _ '23.6월 기준	8.2조 달러 (한화 1경 561조 원)	-
Fundraising ('23년)	0.65조 달러 (한화 837조 원)	18.7조 원
Investment ('23년)	2.1조 달러 (한화 2,704조 원)	32.5조 원
Exit ('23년)	0.35조 달러 ¹⁾ (한화 450조 원)	18.8조 원

1) PE 중 Buyout만 포함

2) 전체 기관전용 사모펀드(PEF 및 Non-PEF) 수치이나, Non-PEF의 영향도는 미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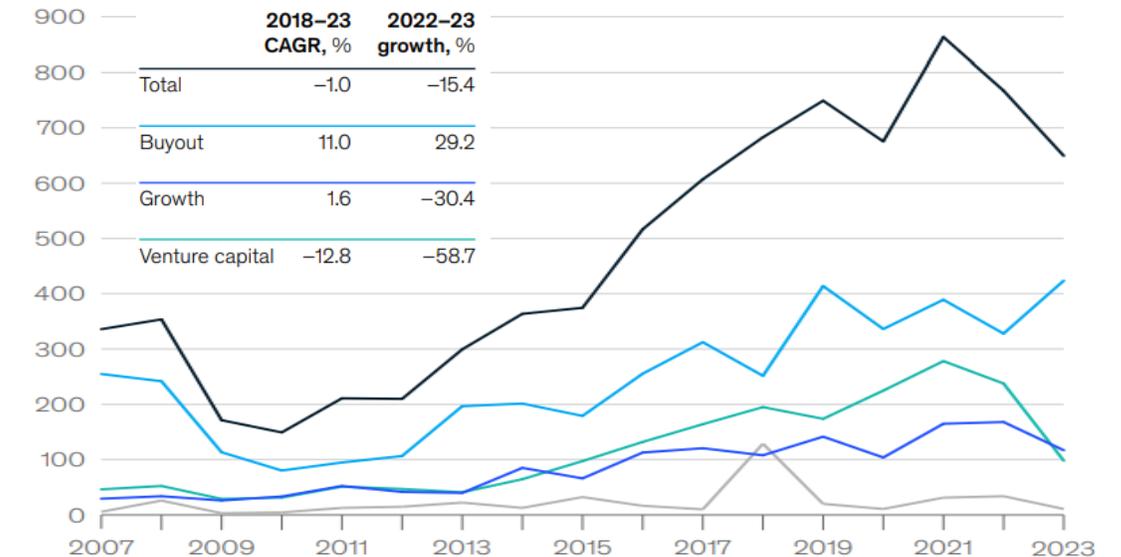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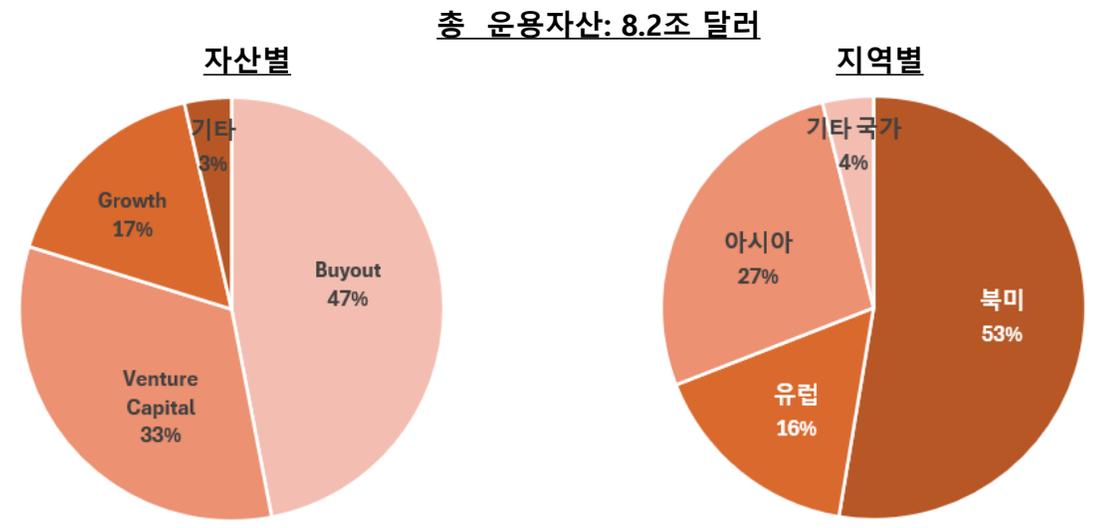
3) 환율은 '23년 평균인 1,288원/\$ 적용

1. 글로벌 PE 동향: 운용자산(AUM) & 자금모집(Fundrasing)

- 글로벌 PE의 운용자산(AUM) 규모는 8.2조 달러('23.6월 기준)이며, '17년부터 연평균 24% 성장**
 - 종류별: Buyout은 3.8조 달러로, 전체 PE 내 47%를 차지. 벤처캐피탈(VC)은 2.7조 달러(33%), Growth 1.3조 달러(17%)
 - 지역별: 북미가 4.3조 달러로 전체의 53%를 차지. 아시아 2.7조 달러, 유럽 1.4조 달러로 각각 전체의 27%, 16%를 차지
- '23년 자금모집(Fundrasing)은 6,490억 달러(-15.4%, YoY). '21년을 고점으로 감소 추이 지속되며, '17년 이후 가장 낮은 금액**
 - VC(-58.7%, YoY)와 Growth (-30.4%, YoY)는 큰 폭의 감소를 보인 반면, Buyout의 자금모집은 전년대비 29.2%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 기록
- 모집자금 감소에도 불구하고 투자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나, 미집행 약정금(Dry Powder)은 역대 최대 규모 ('23년 기준 1.2조 달러)**

운용자산(AUM) (단위: 십억 달러)

자금모집(Fundrasing) (단위: 십억 달러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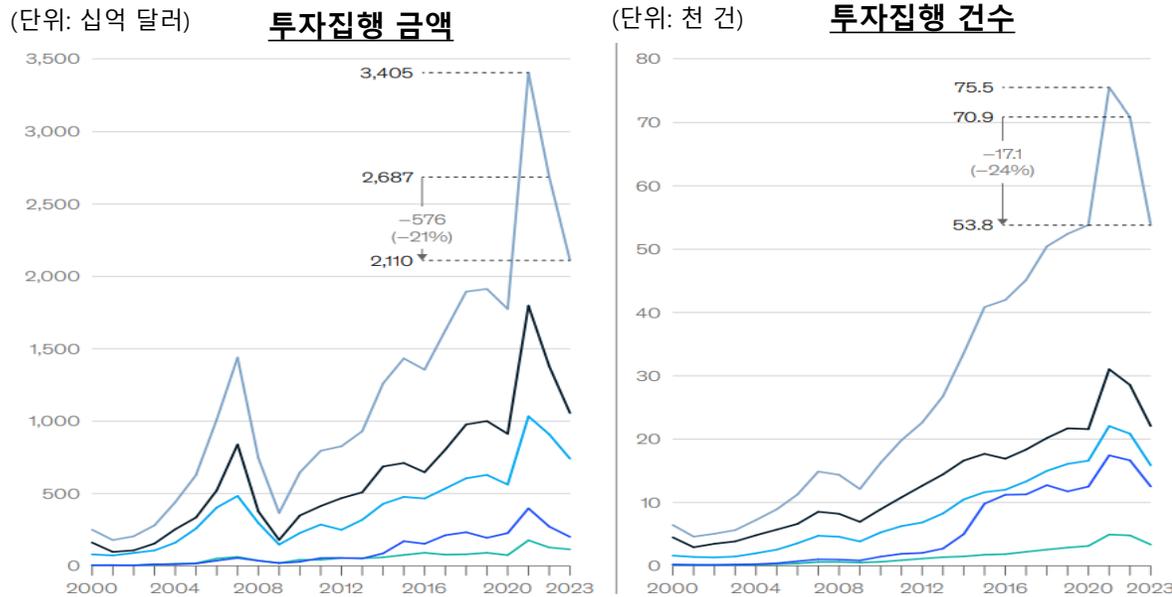
(source: Mckinsey, 삼일PwC경영연구원)

(source: Mckinsey, 삼일PwC경영연구원)

1. 글로벌 PE 동향: 투자(Investment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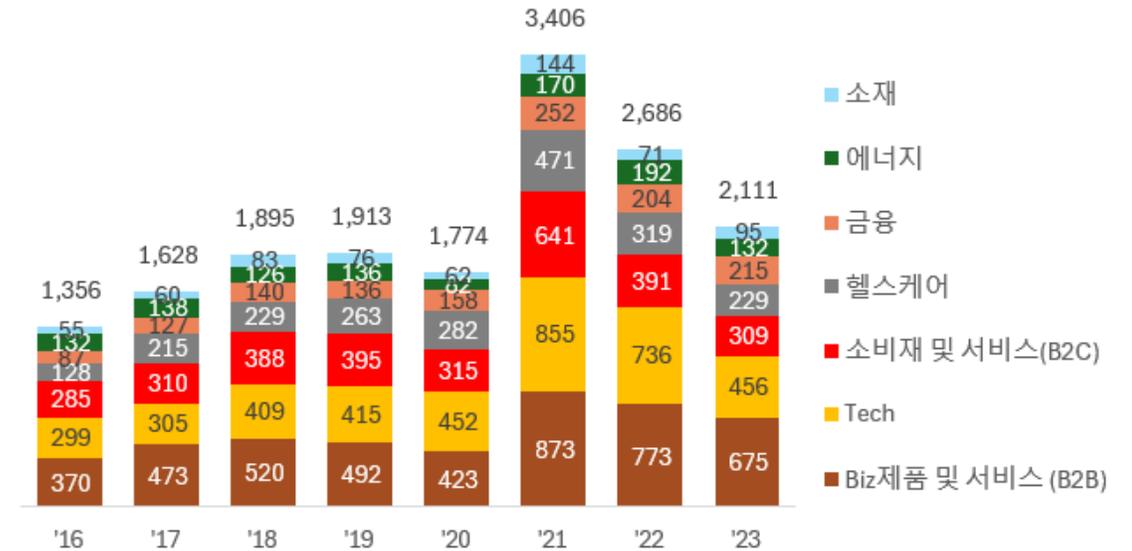
- '23년 글로벌 PE의 투자집행 금액(Deal Volume)은 2.1조 달러, 건수(Deal Count)는 5만3천건으로, 2년 연속 감소추세 지속
 - 고금리 및 매크로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투자금액이 전년 대비 -21%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, 역대 3번째로 높은 수준
 - 유형별로는 Buyout이 전년대비 19% 감소한 1.5조 달러 기록. Growth는 2,400억 달러 (YoY -14%), VC는 3,420억 달러(YoY -36%)
- 업종별로는, 소재와 금융 섹터를 제외하고 전 업종에서 전년 대비 투자금액 감소
 - 팬데믹 이전인 '19년과 비교시에는 금융(+58%), Biz 제품 및 서비스(+37%), 소재(+25%), Tech(+10%), 헬스케어(-13%), 소비재(-22%)순의 투자 증가

투자집행 금액(Deal Volume) 및 건수



업종별 투자 집행 금액

(단위: 십억 달러, %)



(source: Mckinsey, 삼일PwC경영연구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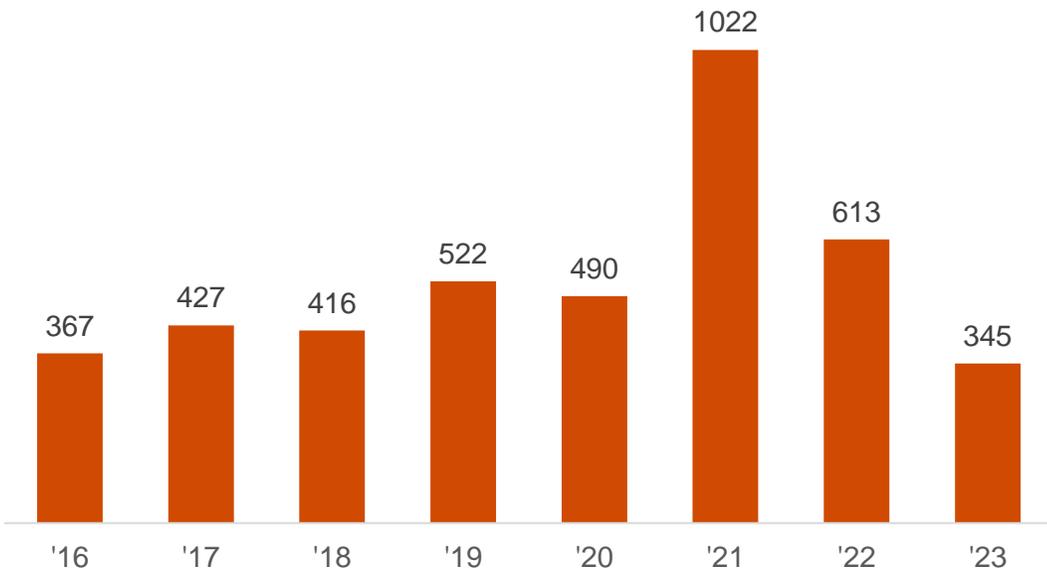
(source: Mckinsey, 삼일PwC경영연구원)

1. 글로벌 PE 동향: 투자회수(Exit)

- 유동성이 제약된 환경에서 Buyer 모색이 어려워지며, '23년 Exit은 3,450억 달러(YoY -44%)에 그침
 - Exit 방법: IPO를 통한 Exit은 3%에 불과하며, 기업에게 매도를 통한 Exit이 가장 큰 비중(80%)
- 수익률은 '22년에 이어 부진한 실적 지속. 특히 VC 펀드의 경우 마이너스 수익률 지속

투자회수(Exit)_Buyout 펀드 기준

(단위: 십억 달러)



(source: Bain&Company, 삼일PwC경영연구원)

수익률(1년 기준 IRR)

(단위: %)



* 2000~2020년 조성된 펀드의 성과를 그룹화하여 계산한 IR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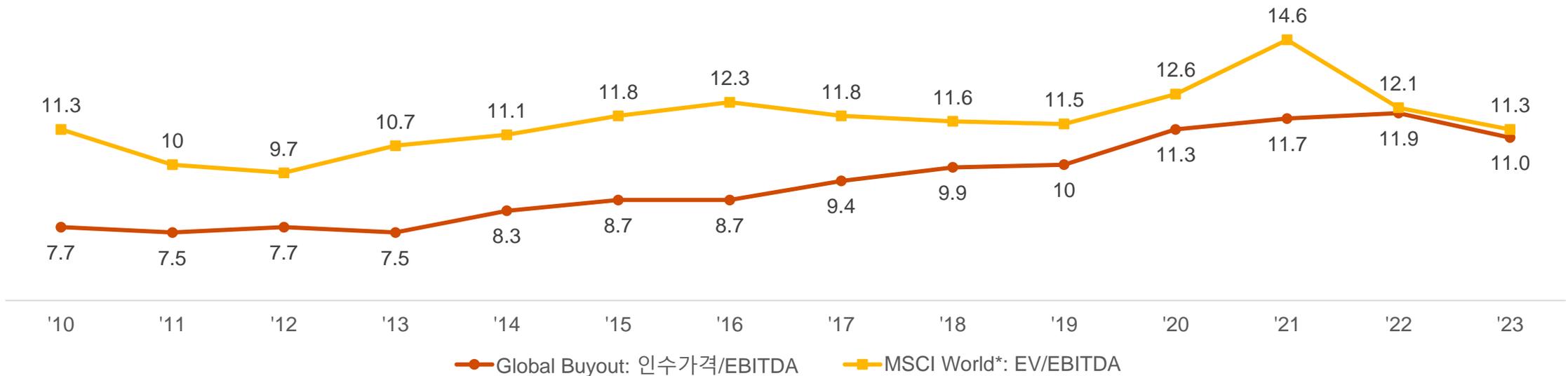
(source: Mckinsey, 삼일PwC경영연구원)

1. 글로벌 PE 동향: Valuation

- '10년부터 '21년까지 PE의 Valuation이 꾸준히 높아졌으나, '22년부터 전반적 투자심리 위축으로 Multiple 하락
- 다만, Multiple이 감소하였으나, 주식시장의 Valuation 감소폭 ('21년 14.6x → '23년 11.3x)과 비교시 양호
→ 투자 위축에도 공모(Public)시장 대비, 사모시장에 대한 선호도가 여전히 높음

글로벌 PE Valuation_Buyout 펀드 (기업 인수 초기 Multiple 기준)

(단위: X)



(source: Mckinsey, 삼일PwC경영연구원)

2. 국내 PE 동향: 규모

- '23년 말 기준 PEF는 총 1,126개, 약정금액 136조 원, 투자이행액 99조원
- 유형별로는 일반 PEF가 948개(전체의 84% 를 차지), 창업·벤처 109개(10%), 재무안정펀드 69개(6%) 順

국내 PEF 시장 규모(기관전용 사모펀드)

(단위: 개, 조 원, %)

	'15	'16	'17	'18	'19	'20	'21	'22	'23
펀드 개수	316	383	444	580	721	847	1050	1098	1126
일반	277	331	378	487	597	686	853	914	948
재무안정	31	45	51	53	63	71	76	69	69
창업벤처			9	35	56	87	118	113	109
기타	8	7	6	5	5	3	2	2	-
약정액 ①	58.5	62.2	62.7	74.4	84.3	96.7	115.6	125.3	136.4
이행액 ②	38.4	43.6	45.5	55.5	61.7	70.2	87.1	97.1	98.9
이행비율(=②/①)	65.6%	70.1%	72.6%	74.6%	73.2%	72.6%	75.3%	77.5%	72.5%
미집행약정액(Dry Powder) ¹⁾	20.1	18.6	17.2	18.9	22.6	26.5	28.5	28.2	37.5

* '21년 개편된 자본시장법의 영향으로 非경영참여형 펀드가 포함되어있으나, 펀드 수 46개(약정액 2.5조 원)로 비중 미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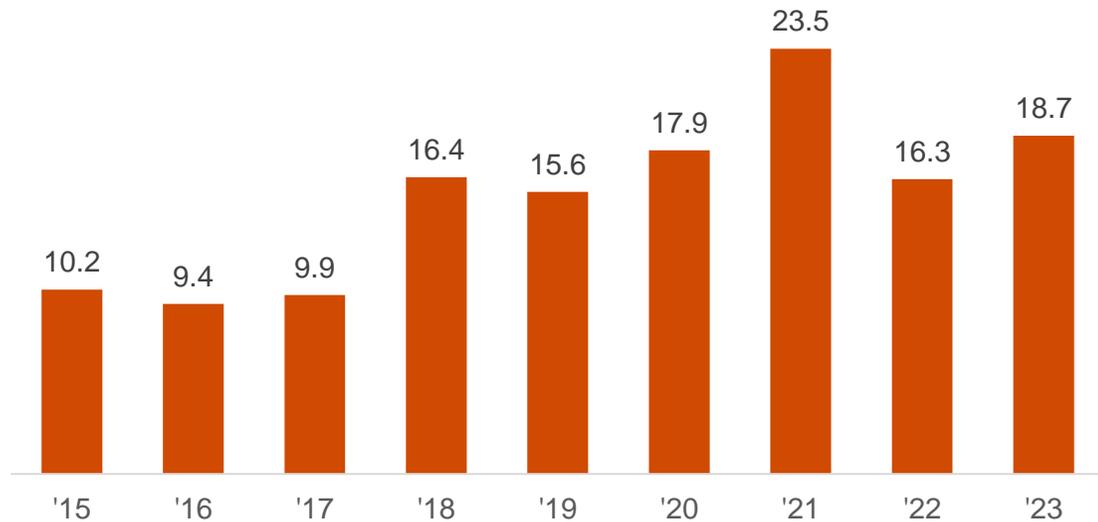
(source: 금융감독원, 삼일PwC경영연구원)

2. 국내 PE 동향: 자금모집(Fundraising) & 투자(Investment)

- '21년 최고 금액인 23.5조 원 모집 후 규모 다소 감소되었으나, '23년에도 18.7조 원 (YoY +15%) 모집하며, 여전히 높은 관심 지속
- '23년 중 PE는 국내외 443개 사(YoY -25%)에 대해 32.5조 원(YoY -12%) 투자를 집행
 - 해외 투자 비중 확대되는 추세였으나, '23년은 큰 폭 축소: '18년 1.3조 원(전체 투자금액 중 9%) → '22년 11.4조 원(31%) → '23년 4.0조 원(13%)
 - 지역별 집중도: 국내 (87%), 아메리카(8%), 아시아(4%), 유럽(1%)順이며, 아시아 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
 - 업종별로는 제조업(60%), 정보통신업(17%), 과학기술업(6%), 금융·보험업(6%) 順으로, 제조업에 대한 투자 쓸림 심화

자금모집 (Fundraising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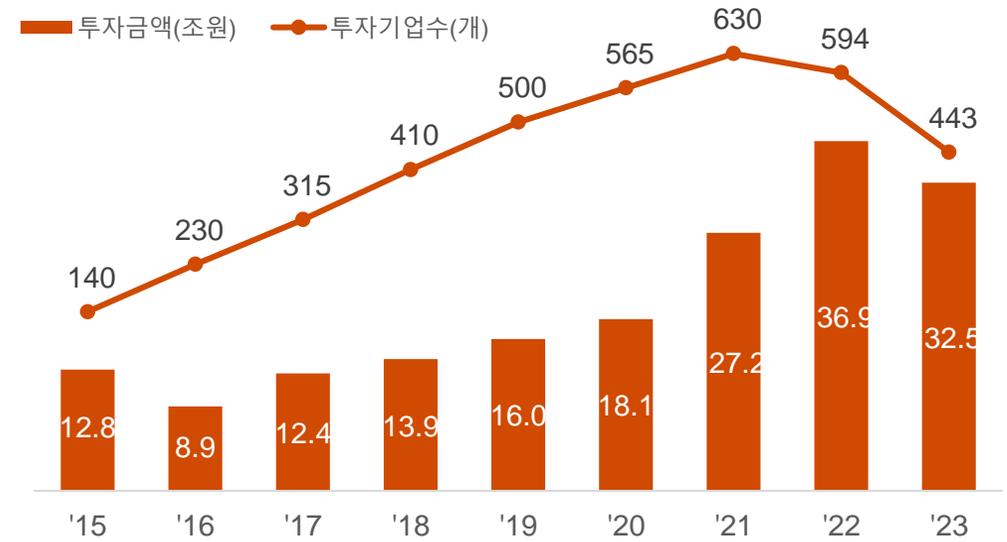
(단위: 조 원)



(source: 금융감독원, 삼일PwC경영연구원)

투자

(단위: 조 원, 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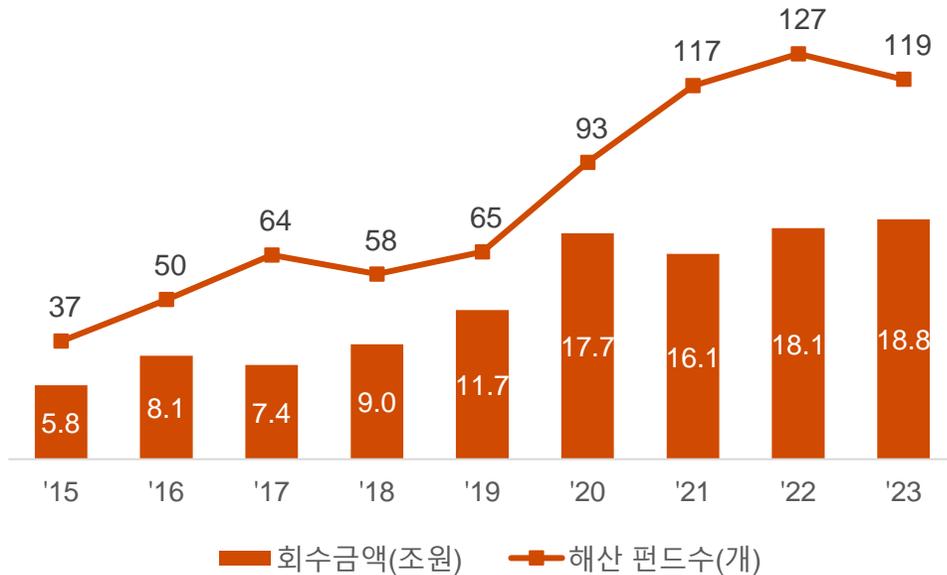


(source: 금융감독원, 삼일PwC경영연구원)

2. 국내 PE 동향: 투자회수(Exit)

- PE의 성장이 지속되고 투자 이력이 누적됨에 따라 투자회수 본격화: '23년 회수금 18.8조 원으로 PEF 제도 도입 후 최고치 기록
- 회수 방식은 중간회수(지분 일부매각, 배당 등) 8.0조 원, 최종회수(IPO, 기업매각 등) 10.8조 원: M&A 시장 위축으로 최종회수는 감소
- 평균 존속기간은 4.8년으로, M&A 시장 침체에 따라 펀드 존속기간도 길어짐
 - 평균 존속기간: ('20년) 4.0년 → ('21년) 3.7년 → ('22년) 3.9년 → ('23년) 4.8년

Exit (단위: 조 원, 개)



(source: 금융감독원, 삼일PwC경영연구원)

단계별 구분 ('23년 기준) (단위: 조 원)

중간회수 (8.0조 원)			최종회수 (10.8조 원)		
배당	제3자매각 (일부)	기타	매각 (M&A)	IPO	기타
3.6	2.9	1.5	8.0	0.7	2.1

(source: 금융감독원, 삼일PwC경영연구원)

2. 국내 PE 동향: GP 현황

- PE 성장과 함께, PEF를 운용하는 업무집행사원(이하 'GP') 지속 증가

- 전체 GP: ('15년) 167사 → ('22년) 415사 → ('23년) 422사로 8개년 CAGR 12.3%
 - o 전업 GP: ('15년) 94사 → ('23년) 316사로 8개년 CAGR 16.4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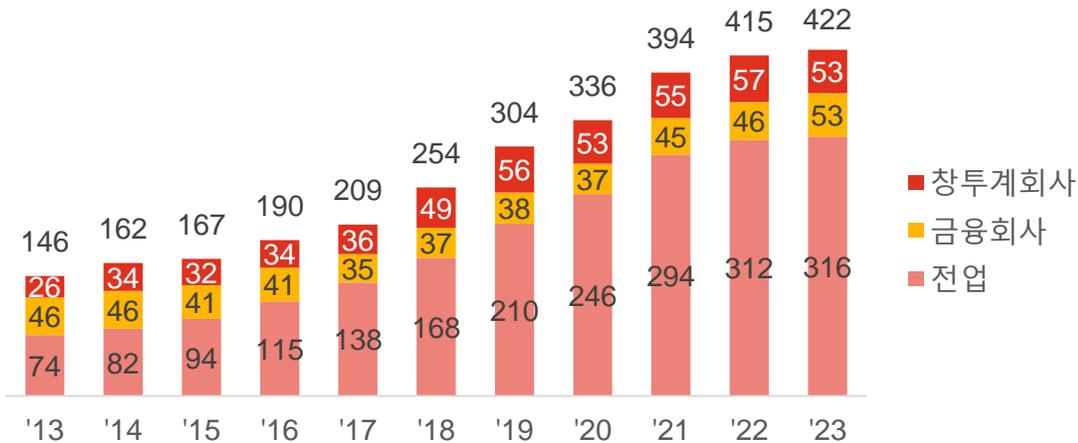
- o 금융회사 GP: ('15년) 41사 → ('23년) 52사로 큰 폭의 변동 없음

- GP를 규모별로 살펴보면

- 대형GP 37사(전체 대비 9%), 중형GP 157사(37%), 소형GP 228사(54%)로 구성
- 대형GP에 대한 자금 집중도 높아지고, 소형GP에 대한 자금 집중도는 감소하여 GP간 양극화 심화
- * 출자약정액에 따라 대형사(1조원 이상), 중형사(1천억원~1조원), 소형사(1천억원 미만)로 구분

GP 현황

(단위: 사)



(source: 금융감독원, 삼일PwC경영연구원)

GP현황: 규모별/ 약정액별

(단위: 사, %)

GP 현황: 규모별

(단위:사)	'21	'22	'23
대형GP	31	35	37
중형GP	150	160	157
소형GP	213	220	228
합계	394	415	422

(source: 금융감독원, 삼일PwC경영연구원)

GP 현황: 약정액 비중

(단위:%)	'21	'22	'23
대형GP	57.6	60.4	64.6
중형GP	37.1	34.3	30.5
소형GP	5.3	5.3	4.9
합계	100	100	100

3. 향후 전망: 환경 변화

- '25년부터 자본시장을 둘러싼 환경 개선 전망

- '22년부터 사모시장 부진이 지속되고 있지만, 자본시장을 둘러싼 주요 매크로 변수들의 영향도가 감소하는 중

☞ 연말로 갈수록 각국의 정치 이벤트(선거)가 마무리되고, 미 연준 금리 인하 여부 등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되며 투자 제반 환경 개선

자본 시장을 둘러싼 매크로 변수

	현황 및 전망	자본시장에의 영향
1 금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'22년부터 진행된 금리 인상으로 자금조달 어려움 지속 최근 EU, 캐나다 등에서 기준금리 인하되며, 글로벌 금리 인하 기대감 형성 	부정적 → 점차 영향도 감소
2 Valuation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매수자-매도자간 Valuation 격차가 큰 상황 고금리 상황에서도 신기술(AI, 바이오, 로봇 등)에 대한 기대감으로 高 Valuation 형성 → M&A 활성화의 제약 요인 	부정적 영향 지속
3 선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요국 선거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의 투자 연기 11월 미국 대선을 끝으로 주요국 선거 마무리되며 불확실성 제거 	부정적 → 점차 영향도 감소
4 지정학적 리스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러-우 전쟁, 중동분쟁 장기화 조짐 미-중 무역전쟁 또한 지속되며,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	부정적 영향 지속

3. 향후 전망: 시장 전망

1 Exit 압력 증가

- PE 포트폴리오 내 절반 이상의 기업이 보유기간 4년 이상 → Exit에 대한 압력 증가 (PE의 평균 투자기간: 4~5년)
- IPO 시장의 부진으로 인해 M&A를 통한 수익실현 욕구 증대

2 자금시장 경색 완화

- 하이일드 채권, 레버리지 대출 등 위험도 높은 자금에 대한 시장 경색 완화

※ 고위험 자금 조달 현황
(미국/유럽)

	'23년 연간	'24년 반기
하이일드 채권	2,230억 달러	2,010억 달러
레버리지 대출	3,790억 달러	3,590억 달러

3 에너지 전환 지속

-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 지속
-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는 에너지 산업의 특성 상, 사모자본이 투자의 중심이 될 것

4 비즈니스 모델 변화 필요성 증대

- 비핵심 자산 매각 & 신기술(AI, 자동화, 바이오, 신재생에너지 등) 투자 지속
- 중금리 지속에 따라 한계기업 구조조정 증가



PE
투자
점진적 회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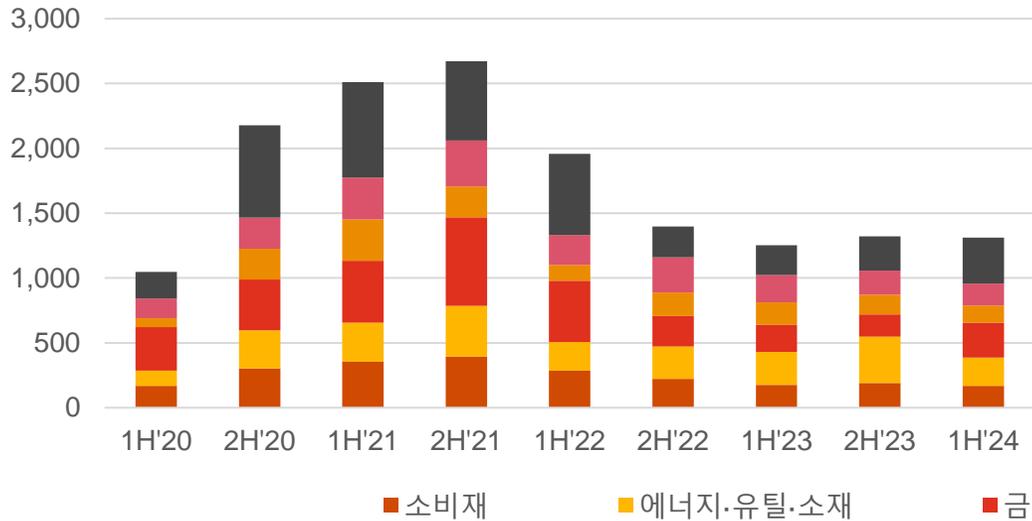
참고: M&A 시장 분석

- [글로벌] '24년 상반기 M&A 시장은 거래건수 23,054건(YoY -25%), 금액 1.3조 달러(YoY +5%) 기록 → 거래건수 감소는 지속되나, 거래금액은 회복 추세**
 - '24년 초 금리 하락 기대감으로 M&A시장 반등이 예상되었으나,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각국 중앙은행의 고금리 기조 유지되며 Deal 침체 지속
 - 다만, 1H'23부터 거래금액 감소가 멈추며, 바닥 다지기 양상 → 향후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 형성
- [국내] '24년 상반기 거래건수 854건(YoY -7%), 거래금액 29조 원(YoY -24%)으로 글로벌(각각 -25%, +5%)과 비교시 건수는 선방, 금액은 부진**

글로벌 M&A 시장

(단위: 십억 달러)

(단위: 십억 달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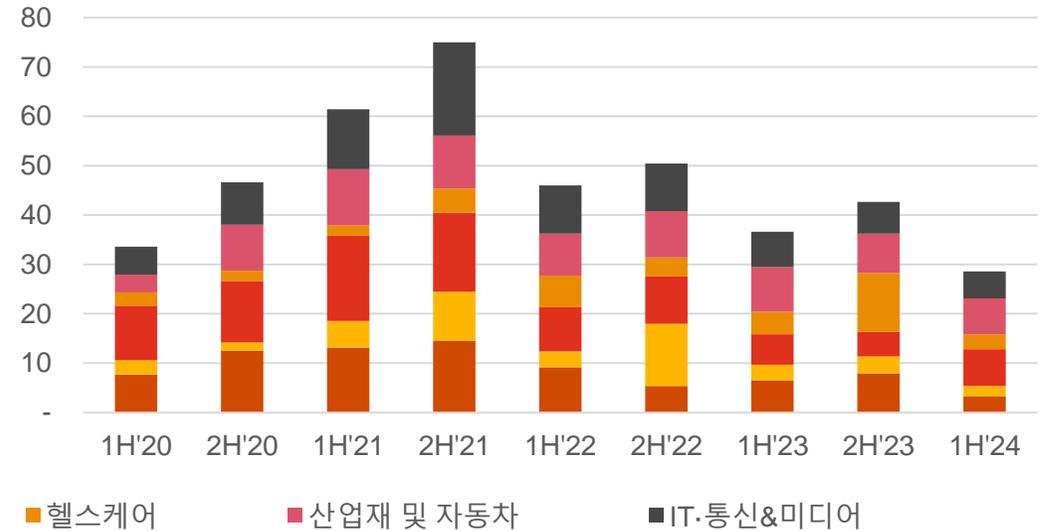


(Sources: LSEG and 삼일PwC경영연구원)

국내 M&A 시장

(단위: 조 원)

(단위: 조 원)



(Sources: LSEG and 삼일PwC경영연구원)

Thank you

www.samil.com

© 2024 Samil PwC. All rights reserved.